

# 책이 없는 방, 절간 같은 방

金華榮

고려대 교수·불문학

독서가 취미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책과 별로  
가까이하지 않는 삭막한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그러나 구태여 독서가  
취미라고 대답하는  
그 심정은, 책과 가까이함을  
귀중한 가치로 여기고,  
그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 ‘취미’로서의 책읽기

요즘도 때때로 취미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고 ‘독서’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도대체 사람을 만나서, 혹은 심한 경우엔 공문서 속에서, 즐기차게 남의 ‘취미’를 알고자 하는 그 기이한 호기심의 전통은 언제부터 우리들 가운데 생겨난 것일까? 하여간, 독서가 취미라는 대답을 들을 때면 옛날 대학 입학때 구두시험보던 때가 생각난다. 철학과의朴鍾鴻교수 앞에서 구두시험을 보다가 예의 취미 대목에서 예의 ‘독서’를 자신의 것으로 내비쳤다가 불호령이 떨어진 친구의 경험담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학생에게 책을 읽는 일이 그야말로 전문의 일이어야 마땅하거늘 어찌 한갓 취미일 수 있느냐는 질책이었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 학생들에게, 혹은 학생이었던 사람들에게 취미를 묻고, 또 독서가 취미라고 대답하는 오랜 버릇은

오늘날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전 쳐다보는 것을 거국적 취미로 삼고 있는 세상엔 그래도 ‘취미’로라도 독서를 한다는 사람을 보면 신기하고 또한 정답게 느껴진다. 물론 독서가 취미라고 대답하는 상당수의 사람들 중 많은 경우가 사실은 책과 별로 가까이하지 않는 삭막한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눈으로 보아서도 알 만하다. 그러나 구태여 사실과 다른데도 독서가 취미라고 대답하고자 하는 그 심정을 나는 오히려 귀중하게 여기고 싶다. 책과 가까이함을 귀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고 그렇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질문과 대답이 타성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필경 딱한 일이겠지만, 책을 잘 안 읽으면서도 남에게는 읽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동기 자체는 아직도 책읽기를 하나의 가치로 믿는데 있는 것이라 여겨지기에 오히려 일종의 공감마저 느끼게 된다. ‘책? 그런 걸 뭣하러 읽어?’ ‘책같은 건 안읽는다, 어쩔래?’ 하고 거리낌없이 반문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것이 요즘 세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책읽기를 일로 여기는 것보다도 취미로 여길 때 더 살아있는 독서, 건전한 독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가장 젊고 발랄해야 할 첫 반생을 입시지옥 속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 보내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 우리는 얼마나 ‘취미’로서의 책들을 읽고 싶어하는가! 밑줄을 쳐가며 읽고 외고 참고서, 연습문제집 속에서 토막내어 읽고 또 읽고 외고 또 외는 독서내용이 아니라, 살아 있는 호기심과 깨어 있는 감수성을 동반하여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밤가는 줄 모르고 읽는 책—그 신선한 충격과 감동이 사실은 얼마나 그리운 것인가?

황폐해져가는 우리들의 공공도서관들, 그리고 독버섯같이 자욱하게 돌아난 간판들의 숲 속에 ‘전자오락실’ ‘당구장’ ‘카페’ ‘속기, 암산, 속독, 붓글씨’ ‘태권도’ ‘헬스클럽’ 사이 어디엔가 삭막하게 끼여 있는 ‘독서실’ 간판을 볼 때면 우리들에게서 자연발생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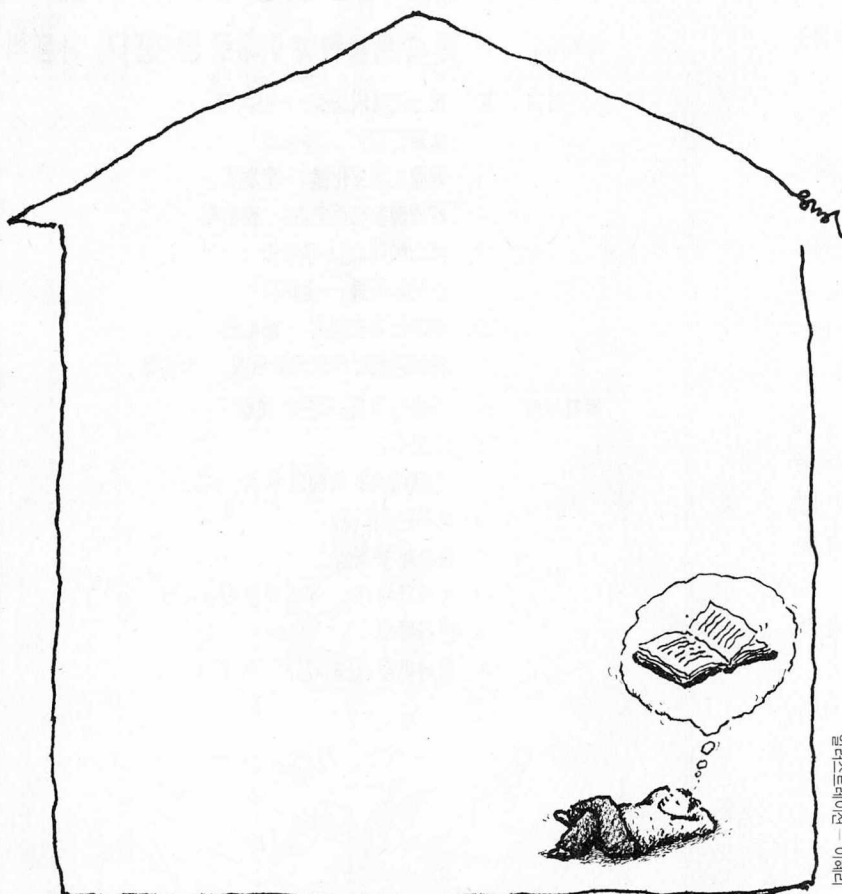
욕구로서의 독서가 얼마나 멀어져가고 있는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버젓한 건물을 세워놓고 간판을 내건 도서관, 독서실보다는 오히려 허름한 버스에 손때묻은 책을 가득 싣고 골목길을 누비는 이동도서관이 거짓없이 싱싱해 보인다. 거기에는 한가한 주택가의 아침나절 햇빛을 받으며 왕성한 호기심과 꿈, 혹은 건강한 갈증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남편이 직장으로 떠나고난 뒤의 잠시 한가해진 한동안 그 이동도서관 앞에서 책을 고르는 주부들을 보면 나는 문득 중학생시절의 골목길 양치바른 곳에 세워져 있던 대본점 생각이 난다. 말이 대본점이지 대역섯칸 높이의 책장 하나가 전부인데, 그곳에 가득히 꽂힌 책들이야말로 나에게겐 보물섬이었다.

## 「魔人」과 「永郎詩選」 사이

전쟁이 막 끝나 환도한 서울거리에 청소년들을 위한 책들이 따로 기획 출판될 수도 없는 사정인지라, 그때 열심히 빌어다 읽은 책들은 물론 성인용이었다. 주로 金來成, 方仁根, 鄭飛石, 金東仁 등이 내가 애독하는 서적들의 저자들이었다. 그중 특히 김래성의「魔人」이라는 탐정소설은 그 상권을 막 독파하고난 참인데 누군가 하권을 빌어가고나서 며칠이 지나도록 돌리지를 않는지라, 급한 나머지 중학생의 가난한 용돈의 한달치에 가까운 거금을 투척하여 그 하권을 이룰테면 ‘자가용’으로 구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내가 일생에서 최초로, 내 주머니를 털어 자발적으로 구입한 책은 탐정소설이었고 그것도 상권이 아닌 하권이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대학생 누이의 심부름을 해주느라고 서점이란 곳에 가서 시집이라는 것을 한권 사오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나는 그 기이한 「永郎詩選」을 들춰보았다. 탐정소설에 심취해 있는 그렇게도 프로자익한 나에게 영랑의 시는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었다.

내가슴 속에 가늘한 내음  
애근히 떠도는 내음  
저녁해 고요히 지는계  
머니니 허리에 슬리는 보라빛



일러스트레이션: 이혜리

그렇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던 「영랑시선」을 무슨 심사에서였는지 나도 한권(그 없는 돈을 털어서) 사서 가지는 일이 생겨버렸다. 지금 내 책장에 꽂혀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 이 책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산 최초의 책으로 아직껏 남아 있는 것이다.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단숨에 읽어버린 「마인」의 하권은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고 없고, 알팍한 「영랑시선」만이 내 독서 역사의 순정한 첫 페이지처럼, 삼십여년 동안의 잦은 이사와 보따리싸기의 위기들을 겪고나서도, 지금까지 남아 있다. 오늘날의 책들에 견주어보아도 손색이 없는 이 시집은 당시에 나온 다른 대부분의 책들과는 달리 西紀로 출판 시기를 표시하고 있는데, 1956년 5월에 정음사에서 출간되었고 값은 400원으로 되어 있다. 당시의 다른 책들에 흔히 보이는 「우리의 맹세」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시집의 「차례」는 책 머리가 아니라 徐廷柱의 「跋詞」, 李軒求의 「재판의 序에 대하여」도 지나서 프랑스식으로 책의 맨 끝에 갖다 붙여놓았다. 이상하게도 페이지가 매겨지지 않은 채 시편의 번호만이 표시된 30여년 전의 책, 영랑의 시를 품에 안은 채, 어느새 그 자체가 시로 변하려고 하는 이 책의 어딘가를 펼치면 써 있오되,

내 가버린 뒤도 세월이야 그대로 흐르고 흘러가면 그뿐이오라  
나를 안어길오는 山川도 萬年한양 그모습  
아름다워라.

이 시집의 갈피에는 전쟁이 막 끝나고난 서울 충무로 4가 어느 서점의 아늑한 실내공기와 골목길에 자욱하던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만년한 양」 깃들어 있는 것 같다. 이 시집을 산 이후 오늘날까지 나는 수많은 서점들을 들락거렸다. 중고등학교시절에는 동대문 시장골목에 즐비한 할인서점들을 헤매고 다녔고, 대학시절에는 구내서점 이외에 특히 동대문과 인사동의 고서점을 자주 찾았었다. 그런데도 세월이 흘러가버려서인가 전공 때문인가 내 머리속에 새겨진 인상깊은 서점들은 서울의 그것보다는 프랑스에서의 서점들이다. 프랑스말로 씌어진

나는 가끔, 단 한권의 책도 없이  
텅텅 비어 있는 정결하고  
금욕적인 방, 거기 누워  
휘파람을 불고 있다보면  
마침내는 책이 그리움이 되고마는  
그런 절간같은 방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것이라면 현 잡지책 하나도 국내에서는 귀하던 시절에 유학을 갔던 탓으로, 대부분의 용돈을 책값으로 다 써도 항상 부족한 것이 책이었다. 도서관에서 빌어보면 될 책도 기왕이면 내것으로 갖고 싶은 마음에 얼마간의 돈만 생기면 서점으로 갔다. 서울처럼 엄청난 대도시도 아닌 한가한 작은 도시였던만큼 하오의 산책코스에는 항상 그 「프로방스」서점이 들어 있었다. 오늘날에는 프랑스에서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은 서점풍경이었다. 그 서점은 요즘처럼 「무슨 책이 읽을 만합니까?」 하고 물으면 기껏 흔해빠진 베스트셀러나 꺼내주는 물취미하고 무식한 서점이 아니었다. 여러가지 분야에 골고루 박식한 서점주인이다가, 저 안쪽 골방에는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나이 지긋한 노인이 필요한 정보를 골고루 안내하고 카탈로그를 찾아가며 각종 자문에 응해주었고, 책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건 자기에게 물어보라는듯 눈빛을 반짝이며 끝도 없이 자상한 설명을 해주곤 했다. 당시의 서점주인은 그냥 책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자부심 강한 교양인들이었다. 이제는 그 교양인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은 입시생들을 상대로 참고서를, 아니면 여성잡지와 재탕삼탕한 인생론 수필집이나 파는 동네 서점 아니면 수퍼마켓처럼 수레를 끌고 다니며 혼자 책을 골라가지고 계산기 앞에 와서 값을 치르는 대형서점들 뿐이다.

#### 조제 코르티와의 만남

교양인이 경영하는 서점으로 두고두고 기억나는 것은 조제 코르티 서점이다. 가스통 바슐라르의 대부분의 저서들, 조르주 풀레,

샤를르 모롱, 네르발, 그리고 특히 초현실주의 시인들과 질리앙 그라크의 모든 저서를 펴낸 조제 코르티 출판사라면 프랑스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내가 그 출판사를 찾아가게 된 것은 1974년, 학위논문을 끝내고 장사로키교수를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였다. 그는 아마도 코르티라면 내 논문을 출판해줄지도 모른다면 찾아와 보자고 했다. 파리의 생 미셸 대로에서 오데옹극장을 향하여 뒤편부르공원을 끼고 가다보면 오른편 길가에 아주 흐릿한 글씨로 문설주에 JOSE CORTI 라고 써있는 곳이 보인다. 나는 그 서점이 곧 그 유명한 출판사 조제 코르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렇다면 그 서점에 발 들여놓은 것이 내겐 결코 처음이 아니었다. 우리가 서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책방의 저 안쪽 구석에 키가 자그마한 노인이 책들과 서류가 잔뜩 쌓인 책상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우리가 코르티씨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자, 그 노인은 무슨 일로 그러느냐고 물었다. 일개 서점주인치고는 별 참견을 다한다 싶었지만 나는 책을 출판하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이번에는 그가 어디 원고를 내놓아보라고 한다. 우리에게 잠시 앉으라고 권하는 법도 없이 우리는 서 있고 자기는 앉은 채로였다. 내가 건네준 원고를 대충 훑어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는 매우 흥미로운 듯하나 너무 길게 썼으니 한 반쯤으로 원고를 줄일 수 없겠느냐고 물으면서, 왜 그렇게 길게 썼느냐고 나무라듯이 말했다.

— 짧게 쓸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요. 하고 내가 빈정대듯이 대답했다.

— 오, 파스칼이 한 말이군요! 하고 노인이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서며 자기 소개를 했다. 그가 바로 다름아닌 그 유명한 조제 코르티씨였다.

— 파스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사실은 지금 당신들이 서 있는 곳이 옛날에 파스칼이 살던 집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십년 전부터 문설주나 벽 같은 데다가 그 사실을 기록한 동판이나 하나 만들어 붙일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읍니다만... 그런 것 다 부질없는 것이지요.

그후 나는 급히 귀국했고, 문제의 논문을 반으로 줄이는 작업은 끝내 손도 대지 못하고 말았다. 다만 코르티서점이 낸 마르셀 레몽의 대저 「보들레르에서 초현실주의까지」(프랑스 現代詩史)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출판했을 뿐이고, 문제의 학위논문은 크게 줄이지 않은 채 우리말로 옮겨 「문학 상상력의 연구」로 펴냈다.

10년 후인 1984년 가을. 파리에 다시 찾아갔던 나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조제 코르티서점에 다시 들렀다. 마르셀 레몽의 知的 자서전 「소금과 재」를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1976년에 나온 이 책을 다른 어떤 서점에서도 구할 수 없었으므로 직접 출판사로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날따라 늘 보이던 젊은 점원은 보이지 않고, 늙어 등이 꼬부라져서 더 왜소해 보이는 코르티 노인이 힘겹게 사다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꽂힌 그 책을 찾아 꺼내어 왔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 1940년에 「보들레르에서 초현실주의까지」를 출판했던 그 노인이 「소금과 재」를 내게 건네주며 늙은 얼굴 속에 섬뜩할만큼 맑은 눈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왔다. 그 역시 밖으로 나와서 가게문에 열쇠를 꽂아 잠고 있었다. 점심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몇주일 후 나는 「르몽드」지에서 파리의 유명한 출판업자 조제 코르티가 사망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그후 상당히 오래동안 뒤편부르공원 옆 조제 코르티서점에는 잿빛 커튼이 내려진 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요즘도 가끔 비가 뿌리는 음산한 가을 오후면 등이 굵고 키작은 노인 조제 코르티를 생각하며 한 시대가 마침내 끝났구나 하는 감회에 젖는다.

나는 가끔, 단 한권의 책도 없이 텅텅 비어 있는 정결한 방, 절간같은 방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어쩌다가 묵어가는 시골 여관방, 주전자와 물그릇과 재떨이가 전부인 그런 금욕적인 방에 별량 누워 휘파람을 불고 싶은 그런 오후에, 그리하여 마침내는 책이 그리움이 되는 그런 오후에..